

凡齋 金奎興의 국내 교육 계몽 활동과 성격

Beomjae Kim Kyu-heung's Educational Enlightenment Activities and Character: The Direction of People's Enlightenment and People's Power

김 주 용*

Joo Yong Kim

국문요약

김규흥은 일찍이 한학을 수학한 후 20대 중반경에 상경하였다. 폭넓은 교류는 시세변화를 절감하는 동시에 다양한 사조를 수용하는 유연한 사고를 견지할 수 있었다. 독립협회 참여나 종교의숙 교사로서 활동은 근대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하는 현상이었다.

을사늑약 이후 위기의식과 亡國에 대한 우려는 모든 관직을 사임하는 계기였다. 서울에서 고향을 오가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1905~1906년 중국으로 외유는 항일역정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출발점이었다. 당시 중국인과 맺은 인연은 항일투쟁에서 뚜렷한 발자취를 남기는 주요한 밑거름이나 마찬가지였다. 대한자강회 가입과 활동 등은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서 민지 계발에 주목하였다.

창명학교는 옥천지역 근대교육을 대표하는 교육기관으로 발전을 거듭하였다. 교사와 학생 등은 국채보상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http://doi.org/10.56475/ygsr.2023.28.1.31>

논문투고일 : 2023.05.09. 논문심사일 : 2023.05.16. 게재확정일 : 2023.06.05.

*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부교수(E-mail: kimsu8590@wku.ac.kr)

Assistant Professor, Korean Chinese Relations Institute, Wonkwang University

등 사회적인 존재성을 자각했다. 일제 경제적인 침략에 맞선 이러한 활동은 현실인식을 심화시켰다.

김규홍의 교육 계몽활동은 단순한 능력 향상에만 있지 않았다. 사회적인 책무를 인식하는 동시에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직시함으로써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려는 목적이었다. 헤이그특사 사건 이후 일제의 침략이 더욱 강화되자 한중 연대에 의한 공동투쟁을 위하여 망명길을 떠났다. 김규홍이 중국에서 항일투쟁을 전개하는 추동력은 국내 교육 계몽활동에서 축적된 경험이었다.

주제어: 독립협회, 종교의숙, 문향헌, 진명학교, 창명학교, 교육 계몽 운동, 국채보상운동, 국권회복운동, 김현구(Henry Cu Kim)

목 차

I. 들어가는 말	IV. 교육 계몽운동사에서 역할과
II. 성장과 계몽활동 참여	위상
III. 옥천지역 근대교육운동과 김규홍	V. 맺음말

I. 들어가는 말

중국 광둥성 광저우에는 신해혁명과 관련된 사적지가 많이 산재해 있다. 그 가운데 한국인으로 신해혁명에 참여했던 범재 김규홍이 거주했던 터도 확인 되었다.¹⁾ 김규홍은 을사늑약 이후 나라의 국운이 완전히 기울어지자 중국으로 망명을 택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외 독립운동기지 건설과 맞물려 급속도로 진전되었다.

金奎興(일명 金復 또는 金凡齋)은 충북 옥천 출신이다. 그는 집안에서

1) 독립기념관, 국가보훈처(2012),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 보고서』, 12, 참조.

한학을 수학한 후 관계에 진출하기 위하여 상경했다.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독립협회에 참여했다. 이를 계기로 새로운 사조 수용은 사회문제에 대한 개혁의지로 이어졌다. 일찍이 옥천지역에 독립협회 지회 설립은 그의 활동과 무관하지 않다. 내부주사로 승진하는 등 ‘개혁관료’로서 모습도 보여준다. 이러한 인식은 근대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中橋義塾에 교사로 재직하는 계기였다. 그에게 치열한 생존경쟁시대에 부응하는 방안은 근대교육에 의한 인재양성이었다. 을사늑약 이후에는 대한자강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고향을 왕래하면서 彰明學校를 설립하거나 仁明學校에 의연금을 기부하는 등 근대교육 보급에 의한 민지 계발에 적극적이었다.²⁾ 활발한 활동과 달리 김규홍의 국내에서 활동은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근본 원인은 구체적인 활약상을 파악할 수 있는 절대적인 자료 부족에서 비롯되었다.

한편 헤이그특사 사건 이후 마지막 국가의 간성인 군대는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해산되고 말았다. 새로운 국권 회복을 위한 계획이 모색되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시대적인 소명은 그에게 다가왔다. 고종의 밀명에 따라 김규홍은 俄淸銀行에 예치된 비지금으로 상하이에 무관학교를 설립하고자 분투했다. 실행에 옮기기 직전 일본 헌병대에 탐지되어 계획은 좌절되었다. 이후 구금과 감시가 심하여 국내에서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그의 원대한 구상은 한중 국제적인 연대에 의한 항일투쟁이었다. 1908년 3월경 중국으로 망명은 자신의 항일운동 방략 실천과 맞물려 있었다. 이는 이전부터 중국 인사들과 일정한 교분이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주목된다.

2) 김형목(2013), 『한말 충북지역의 국권회복운동』, 『역사와 담론』, 제68권, 15·20쪽 : 김형목(2015), 『옥천의 근대교육운동』, 『옥천군지(역사와 전통)』, 제2권, 103쪽 : 김형목(2016), 『대한제국기 충청지역 근대교육운동』, 도서출판 선인, 24쪽.

중국 인사들과 연대하는 가운데 한국인 최초로 신해혁명에 참여하는 이가 바로 김규홍이었다. 그의 참여는 중국인의 항일운동에 대한 지원을 견인해내는 든든한 밑거름으로 작용했다. 한중 양국의 국제적인 연대는 조국광복을 도모하려는 최선책 중 하나였다.³⁾ 이러한 시도는 반제 공동투쟁이라는 관점에서 주목할 부분이다. 더욱이 한국청년들의 신해혁명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지는 이러한 시대 상황과 무관하지 않았다.⁴⁾ 평화와 자유를 향한 인류 보편적인 가치관은 식민지배의 질곡을 타파하는 관건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김규홍 연구는 중국에서 항일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⁵⁾ 최근에는 신해혁명 참여와 이후 활동상을 여러 측면에서 조명하였다. 광둥정부에서 역할, 『향강잡지』 간행 후원, 둔전제에 의한 독립군 양성계획, 북경군사통일회의 참여와 지원, 흥화실업은행 설립 등은 대표적인 경우이다.⁶⁾ 오랜 항일투쟁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3) 배경한(2011), 「신해혁명과 한국-김규홍의 광둥에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제212호, 281쪽; Henry Cu Kim(金鉉九)(1987), 『The Writings of Henry Cu Kim』, University of Hawaii Press, 80~83쪽. 김현구는 충북 옥천 출신으로 1909년 4월 미국으로 건너가 네브래스카 소년병학교에 입학하였다. 그는 1919년 1월 대한민국회의 추천으로 『신한민보』와 『국민보』 주필을 맡은 대표적인 언론인이었다. 또한 북경군사통일회의 하와이 대표를 역임하는 등 해외 항일운동세력과 연대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 (국가보훈처(1996), 『독립유공자공훈록』 제12권, 484쪽).

4) 강영심(2010), 『시대를 앞서간 민족혁명의 선각자 신규식』, 역사공간, 59~62쪽.

5) 박영석(1984), 『일제하독립운동사연구』, 일조각; 김희근(1995), 『중국관내한국독립운동 단체연구』, 지식산업사; 김상철·김상구(2010), 『범재 김규홍과 3·1혁명』, 이담북스; 조규태(2005), 『박용만의 중국에서의 민족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45호; 김도훈(2010), 『박용만: 미 대륙의 항일무장투쟁론자』, 역사공간.

6) 김한영(2002), 『범재와 독립운동』, 서울정판사; 손염홍(2004), 「1910년대 중반 북경 한인사회와 민족운동의 특징」, 『한국근현대사연구』, 제30권; 김상철·김상구(2010), 『범재 김규홍과 3·1혁명』, 이담북스; 배경한(2007), 『쑨원과 한국』, 한올아카데미, 163~165쪽; 배경한(2011), 「신해혁명과 한국-김규홍의 광둥에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제212권; 김호진(2014), 「범재 김규홍(1872~1936)의 민족운동과 독립군 양성 계획」, 충북대학교 사학과 석사논문, 1~4쪽; 김호진(2015), 「범재 김규홍의 생애와 독립군 양성 계획」, 『한국근현대사연구』, 제74권, 157쪽; 조은경(2017), 「1910년대 전후 한인의 광주 진출과 독립운동 기반 구축 시도」, 『월례발표회발표문』, 한국독립운동사

조국광복에 진력하였다. 그럼에도 인생 여정 전반부인 국내에서 활동은 여전히 베일 속에 가려져 있다.

이 글은 기존 연구성과를 토대로 중국으로 망명하기 이전 김규홍 교육계몽활동과 역사적 성격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두었다.⁷⁾ 그는 서울에서 관직생활을 하는 외중에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독립협회 옥천지회 조직은 김규홍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후 종교의숙에서 교육활동과 대한자강회 회원으로 활동은 옥천지역 계몽운동을 전개하는 든든한 에너지원 중 하나였다. 열의와 달리 일제의 감시로 합법적인 교육 계몽활동도 전개할 수 없는 참담한 현실이었다.

현실인식 변화와 더불어 소중한 경험은 망명지 중국에서 다양한 항일운동을 전개하는 정신적인 자양분이었다. 근왕주의에서 공화제를 수용할 수 있었던 배경도 이와 같은 인식변화에서 비롯되었다. 중국인과 폭넓은 교류는 1908년 이후 1920년대 초반까지 중국 관내에서 항일공동 투쟁을 전개하는 든든한 밑거름이었다. 이 글은 자료 부족으로 추론에 의한 논지가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연구소, 특히 KBS는 김규홍 독립운동을 다큐멘터리로 제작·방영하는 등 그의 인생역정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유도했다(KBS스페셜 “3·1운동의 숨은 대부 김규홍”, 2013년 3월 3일 방송). 그러나 2019년 3.1운동 100주년으로 기획된 KBS 시사기획 창·밀정 편에서 김규홍의 제국 일본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의 국외에서의 독립운동 위상이 크게 절하되었다. 그만큼 독립운동의 지속성을 담보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김규홍의 예가 역설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박결순(2020), 「옥천인의 해외독립운동과 선양사업의 과제」, 『중원문화연구』, 제28권; 배경한(2019), 「독립운동과 친일의 경계 -在中 독립운동가 金奎興의 宇都宮太郎 조선군사령관과의 접근문제」, 『역사학보』 제244호, 참조.

- 7) 김형목(2016), 『대한제국기 충청지역 근대교육운동』, 도서출판 선인, 37~39쪽; 김호진, 「법제 김규홍의 생애와 독립군 양성 계획」, 『한국근현대사연구』, 제74권, 161쪽.

II. 생장과 계몽활동 참여

김규홍(1872~1936)은 1872년 6월 13일에 충북 옥천군 문정리의 聞香軒에서 출생하였다. 아버지 命性和 어머니 연일 정씨 사이에서 2남 1녀 중 장남이었다. 본관은 청풍으로 호는 凡齋이다.⁸⁾ 선조들은 원래 경기도 광주에서 살았다. 9대조 克亨과 8대조 洵은 실촌면에 묻혔다. 7대조인 槿는 서울에서 생활한 것으로 추정된다.⁹⁾ 충북 옥천으로 이주를 결정한 계기는 6대조인 述魯 대부터였다. 그는 영동현감과 금산군수 등을 역임하였으며, 무주부사로 재임할 당시 이곳을 종종 방문하였다. 수려한 풍광에 반하여 이곳에 정착하기를 결심했다고 전해진다. 그의 사후 후손은 유언에 따라 옥천으로 이거하여 정착하기에 이르렀다.¹⁰⁾

문향헌은 5대조 致信에 의하여 1760년경에 설립되었다. 명칭은 자신의 호를 따라 지었다.¹¹⁾ 이 건물은 여러 차례 중수를 거쳐 현존하고 있으나 후손들이 살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은 격변기 한국근대사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마 1910년 전후로 매각된 것으로 보인다.¹²⁾ 吳重默은 1913년 3월부터 1924년 3월까지

8) 국가보훈처(2000), 『김규홍』, 『독립유공자공훈록』, 제14권, 96쪽.; 김한영(2002), 『법재와 독립운동』, 서울정판사.; 청풍김씨대종회(2003), 『독립운동가 법재공 휘 규홍 행장』, 『청풍김씨세헌록』, 836쪽.; 청풍김씨세보편찬위원회(2010), 『청풍김씨세보』, 제2권, 934쪽.

9) 「김극형」, 『정오식년사마방목』; 「김순」, 『정묘식면사마방목』; 「김고」, 『국조문과방목』; 청풍김씨세보편찬위원회(2010), 『청풍김씨세보』 제1권, 77쪽.; 김호진, 「법재 김규홍의 생애와 독립군 양성 계획」, 『한국근현대사연구』, 제74권, 159쪽.

10) 『승정원일기』 영조 22년 2월 25일조, 영조 25년 7월 18일조, 영조 31년 1월 21일조; 김한영, 『법재와 독립운동』, 15쪽; 청풍김씨대종회, 『독립운동가 법재공 휘 규홍 행장』, 『청풍김씨세헌록』, 834쪽.

11) 김한영, 『법재와 독립운동』, 15쪽.

12) 문향헌의 소유주 변동에 대해 김호진, 「법재 김규홍(1872~1936)의 생애와 독립군 양성 계획」, 『한국근현대사연구』 74, 160쪽을 참조하라. 이 논문에서 문향헌의 이전

문향헌을 소유한 인물이다. 이어 1929년 6월까지 그의 후손인 吳基百 · 吳文鎬가 소유했다. 문제는 문향헌 앞마당에 설립된 “明治天皇御一週年祭紀念碑”이다. 이는 1913년 7월 30일 건립된 사실에서 오중묵 일가에 의해 세워졌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¹³⁾ 일부 증언에 의하면 김규홍이 세웠다고 하나 사실은 아니다. 김규홍은 기념비가 건립되기 이전에 중국으로 망명하였기 때문이다.

재지 세력의 자제들과 마찬가지로 김규홍은 한학을 수학하였다. 조부인 東敎가 직접 가르쳤으며 20세를 전후로 상당한 학문적인 수준에 도달했다. 특히 六韜와 三略에 상당한 관심을 둘 정도로 학문적인 명민함은 주위로부터 칭송을 들었다. 전통교육을 수학한 후 서울로 상경하여 여러 사람과 교유하는 등 본격적인 사회활동에 나섰다. 1901년 중교의숙에 재임한 사실에서 이보다 이전에 상경한 것으로 쉽게 짐작된다. 중교의숙 전신인 時務學校는 1899년 2월 2일 훈동 以文社의 洪鍾復 집에서 개교한 당시를 대표하는 사립학교 중 하나였다. 입학자격은 18세 이상 30세 이하 남자, 시험과목은 한문 독서와 국한문 작문이었다. 교장 閔泳綺, 교감 成岐運, 교사는 魚允迪 · 尹邦鉉 ·

시기는 『황성신문』 1901년 11월 23·25·26일자 ‘광고’에 근거하여 1901년으로 추정하였다. 다만 인수자와 정확한 시기는 유보했다.

- 13) 吳相奎(1924), 『寓居吟』, 『槐庭集』, 51쪽.; 국사편찬위원회(1972), 『吳相奎』 · 『吳允默』 · 『吳重默』, 『大韓帝國官員履歷書』, 314~316쪽. 고정 오상규와 아들은 모두 관료로서 활동했다. 이후 오상규는 대한자강회 · 대한협회 회원으로 활동하는 한편 한북흥학회 · 서북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서북지역을 대표하는 계몽론자였다. 강제병합 이후 그는 옥천으로 낙향하여 은거하였다 (대한자강회, 『회원명부』, 『대한자강회월보』 5, 1906; 대한협회, 『회원명부』, 『대한협회회보』 3, 1908; 『대한매일신보』 1906년 10월 30일 잡보 『漢北興學會趣旨』; 『공립신보』 1907년 5월 31일 본국소식 『吳氏義捐』, 7월 8일 본국소식 『宋氏追悼』, 1908년 8월 5일 본국소식 『西北學會歷史』 참조). 그는 오중묵과 吳允默 두 아들을 두었다. 이들은 일제 식민정책에 편승하는 행보를 보인다. 차남인 오윤묵에 대한 ‘모범인’으로 칭송은 이들 행적을 지나라하게 보여준다(『매일신보』 1912년 1월 13일 『忠北의 篤志家』 참조). 명치천황과 관련된 기념비는 식민지배와 관련하여 극단적인 친일행적으로 묵과할 수 없는 명백한 역사적인 사실로서 철저한 비판이 요구된다.

金聲鎮·姜興秀 등이었다. 주요 교과목은 각부 현행장정, 각국 통상 조약과 공법, 법률, 산술 등 그야말로 행정 실무에 요긴한 내용이었다.¹⁴⁾ 수업시간은 하오 8시부터 10시로 야학교였다.

학부대신은 교육시설 확충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개학한 지 4개월 만에 주학으로 전환하는 등 전문적인 인력 야성에 전력을 기울였다. 이듬해 11월 1일에는 중교의숙으로 개칭하면서 교육 내실화를 도모했다. 엄격한 학사 관리는 반발을 초래하였으나 교육 정상화로 진전하는 지름길이었다.¹⁵⁾ 교사로서 활동은 근대학문에 대한 소양이 어느 정도 소유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학문적인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유고집이 있었다고 한다. 불행하게도 6·25전쟁 와중에 소실되어 현존하지 않는다.¹⁶⁾ 학문적인 경향성이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는 민족적인 비극과 함께 멸실되고 말았다.

그의 학문적인 경향성은 다른 자료를 통하여 부분적이거나 엿볼 수 있다. 金鉉九의 자서전에 따르면, 崔益鉉 사상에 크게 공명하였다고 한다. 가까운 인물로는 독립협회 회원이었던 尹夏榮이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상에 공명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성리학적 義理論으로 집착된다. 삼종제인 金奎喆의 의병활동을 지원한 후손들 증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간재 田愚의 陞豆村 생활에 대한 비판은 이를 방증한다.¹⁷⁾ 창강 金澤榮은 그의 士魂에 반하였다고

14) 『황성신문』 1899년 1월 17·20~28 광고, 2월 4일 잡보 「開學禮式」, 3월 30일~4월 10일 광고 「私立始務學校」.

15) 『황성신문』 1899년 6월 24 잡보 「夜變畫學」, 1900년 11월 1일 잡보 「中橋義塾」, 1901년 1월 5·7일 광고, 3월 9~12일 광고.

16) 김진영(1964), 「법재공행장」, 『청풍김씨가승』, 139쪽.; 김한영, 『법재와 독립운동』, 59쪽.

17) 김현구, 「The Writings of Henry Cu Kim」, 하와이대학 한국학연구센터, 1987, 68·93~94쪽; 『국민보』 1951년 5월 30일 「김규홍 사건」.

한 사실에서 상당한 학문적인 수준임이 짐작된다. 심지어 일제도 1919년 文筆로서 배일사상을 고취하는 인물로 언급할 정도였다.¹⁸⁾ 모순된 현실을 타파하려는 강렬한 개혁적인 의지도 여기에서 부분적이나마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1902년 김규홍은 김현구에게 『동국통감』·『고려사』·『삼국사』 등을 선물하면서 신학문을 공부하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듬해에는 『음빙실문집』·『태서신사』·『만국사』 등을 선물할 만큼 서양문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처럼 김규홍은 상경한 후 다양한 사상을 접하면서 시세에 부응하는 방법론을 모색하고 있었다.¹⁹⁾ 사회진화론은 물론 초기 사회주의 이론도 수용할 정도로 유연하고 개방적인 사고를 지녔다. 그는 근왕주의에서 점차 탈피하여 신사조를 적극 수용·실천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격동의 시대 상황은 인식 변화를 초래하는 기폭제나 마찬가지였다.

1902년 내부주사로 관계에 진출한 이래 1905년 승릉참봉으로 품계는 6등과 8등이었다. 이후 모든 관직을 사임하였으나 품계는 다시 6등으로 승차하였다. 1906년 전 참봉으로 소개한 사실은 당시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²⁰⁾ 관계로 진출한 배경은 조부 동교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던 것 같다. 조부는 경복궁을 중건할 당시 원납전 1만냥을 헌납하였다. 거금을 헌납한 그는 시상으로 벼슬을 하사받았다.²¹⁾ 이를 계기로 궁중 인사들과 자연스럽게 인맥을 형성할 수 있었다. 이는

18) 「김규홍 사건」, 『국민보』, 1951년 5월 23일 ; 최혜주(1996), 『창강 김택영의 한국사론』, 한울, 32쪽.

19) 김현구, 「The Writings of Henry Cu Kim」, 81~93쪽.

20) 『관보』 1902년 6월 4일, 1905년 4월 11일 「서임급 사령」, 1906년 1월 21일 「궁중녹사」; 『황성신문』 1902년 6월 5일, 1905년 4월 13·14일 관보 「서임급 사령」, 1906년 4월 14일 잡보 「홍승로 기서」.

21) 『고종실록』 권3, 고종 3년 10월 1일조; 『승정원일기』, 고종 3년 10월 1·12일조.

김규홍이 관계로 진출할 수 있는 든든한 배경 중 하나로 작용했다. 과거제 폐지에 의한 천거제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었다.

상경을 전후로 한반도를 둘러싼 일제와 서구 열강은 각축전을 벌였다. 동학농민혁명·을미사변·아관파천 등으로 지배층은 갈등과 대립을 거듭하고 있었다. 각종 이권은 외세에 의존한 지배층들의 전리품으로 인식될 정도였다. 위기상황을 타파하려는 몸부림은 개명한 관료나 지식인에 의한 이권반대운동을 전개하는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김규홍은 사태를 관망하는 한편 옥천지역 인사들과 교류하였다고 짐작된다. 충북 도내에서 최초로 조직된 계몽단체인 독립협회 옥천군지회 조직은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이 단체는 1898년 12월 본회로부터 인가를 받아 외부 세계와 소통하는 주요한 통로로서 활용되었다. 당시 역동적인 움직임에 대해 기관지인 『독립신문』은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충청북도 옥천군 인민들이 독립협회의 충군익국 하는 목적을 흠모하여 보급금도 만히 낼뿐더러 또한 회군에 독립 지회를 설치하려고 독립협회 회중에 청원을 하였는데 독립협회에서 허가하여 주기로 작정이 되었더니 각 지방 인민이 모두 이 옥천 인민과 같이 충이에 열심흥진된 나라의 부강함과 인민의 기명하는지 대단히 유조할너라.²²⁾

옥천 지회의 목적은 토론회·강연회 개최와 근대교육 보급 등을 통한 문명사회 건설에 있었다. 특히 회원들의 지식배양과 정보제공 등은 주요 활동영역이었다. 단체 활동과 준법정신 강조는 새로운 사회질서에 부응하는 행동규범으로 정립되어 나갔다. 상호 간 의견을 존중하는 ‘토론문화’는 이러한 가운데 사회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22) 『독립신문』 1898년 12월 13일 잡보 「옥천 지회」.

官治補助的인 鄉會·洞會·民會 등 성격 변화는 이와 맞물려 진행되었다. 토론회의 근대교육사나 변혁운동사에서 위상은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과 무관하지 않았다.²³⁾ 곧 옥천지회 설립은 김규홍이 옥천지역 재지 세력과 밀접한 연관성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독립협회 회원으로 서술된 기록은 없다. 다만 『獨立協會沿革略』에 언급된 바처럼 “동서 열국의 인사들도 찬성하며 원조까지 하고 會의 표면화치 아니한 인사도 有하고 또 표면화로 회의 명예고문과 찬성장·찬성원 등으로 있는 이도 많았었다.”라는 표현처럼 그도 포함되지 않았던 것 같다.²⁴⁾ 옥천지회 결성에 중앙과 연결될 수 있는 인물은 아직까지 발견할 수 없다.

독립협회에서 활동은 근대교육이나 신문 등 언론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다. 1901년 중교의숙 교사로서 경험은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절감하는 계기였다.²⁵⁾ 물론 근대교육기관에서 수학하였는지 여부는 현재까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당시 사립학교는 대부분 전통교육과 근대교육을 절충하고 있었다. 그의 한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졸업생 중 이재찬은 1905년 그와 함께 참봉에 올랐다.²⁶⁾ 교육자로서 소중한 경험은 훗날 옥천 창명학교 설립이나 상하이 무관학교 설립계획 등으로 계승되었다.

시무학교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인물은 趙民熙이다. 그는 평북관찰사·궁내부 특진관·법부협판·비서감경 등을 역임하였다. 평북관찰사 재임 당시 도내 27개 전통교육기관을 사립학교로 변모시킨 장본인이다.

23) 『大韓每日申報』 1905년 12월 23일 잡보 「山林疏批」; 김형목(1998), 「사립흥화학교(1898~1911)의 근대교육사상 위치」, 『백산학보』, 제50호, 299쪽.

24) 필자미상(1927), 『독립협회연력략』, ; 편집부, 『독립협회연력략』, 『창작과 비평』, 봄호(1970), 창작과비평사, 112~137쪽.

25) 『황성신문』 1901년 10월 17일 광고.

26) 『황성신문』 1900년 5월 2일, 11월 1일 광고; 『관보』 1905년 4월 11일 「서임급 사령」.

시무학교에는 거금인 20원을 기부하는 등 근대교육 보급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²⁷⁾ 이러한 친분은 후일 창명학교를 설립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분명한 와중에 뜻하지 않은 사건이 돌출하였다. 1903년 ‘甲川보막이분쟁’이었다. 그는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김현구 집을 자주 방문했다. 당사자는 康洪大였다. 원인은 갑천에 보막이를 설치하려는 같은 계획이 중복되면서 시작되었다. 상호 이해 조정으로 사태는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나 소송 비용 등으로 상당한 재산 손실이 초래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여론에 공포하기 위하여 분쟁과 관련된 사람들이 모였다. 閔泳煥 가족, 진명학교·창명학교 교장인 閔衡植, 매부인 申在熙 등은 대표적인 인물이다.²⁸⁾

이 사건은 김규홍의 이후 활동을 결정짓는 특별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강홍대는 함북 출신으로 別入侍였다. 두 사람은 고종의 밀명을 받아 국외로 망명하였다.²⁹⁾ 김규홍은 1905~1906년경 종이장사나 인삼 장사로 변장하여 중국을 다녀왔다. 목적은 중국인의 도움을 받아 무관학교 설립하여 독립군 양성하기 위함이었다. 이때 중국인 천중밍(陳炯明)이나 탕샤오이(糖昭儀)와 소중한 인연은 이후 신해혁명 참여나 중국인의 한국독립운동 후원을 받는 결정적인 배경으로 생각된다.³⁰⁾ 외유를 통한 국제정세에 대한 안목은 향후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터를 모색하는 계기였다. 그는 누구보다 일찍 국제적인 연대의 중요성을

27) 『황성신문』 1899년 1월 11일 잡보 『西域飛鴻』; 1900년 6월 29일~7월 2일 광고; 김형목, 「사립흥화학교(1898~1911)의 근대교육사상 위치」, 『백산학보』 58, 297쪽.

28) 김현구, 「The Writings of Henry Cu Kim」, 75·78~79쪽; 『국민보』 1951년 5월 23일 「김규홍 사진」.

29) 김현구, 「The Writings of Henry Cu Kim」, 75쪽; 『국민보』 1951년 5월 23일 「김규홍 사진」.

30) 『국민보』 1951년 5월 23·30일 「김규홍 사진」.

간파하고 있었다.

중국을 다녀온 후 여러 지인들의 주선으로 고종을 알현했다. 고종은 아청은행에 예치된 비자금으로 상하이에 무관학교를 설립하여 독립군을 양성하라는 밀명을 내렸다. 계획은 실행하기 직전 일본 헌병대에 발각되었다. 100여 일간 감금된 후 석방되었으나 1년간 엄중한 감시를 받았다. 일제는 여러 차례 그를 찾아와 협박과 회유를 일삼았다. 여러 유혹을 물리치고 1908년 3월경에는 중국 망명길에 나섰다.³¹⁾ 한중 양국에 의한 항일투쟁을 펼치려는 시발점이 시작되는 신호탄이었다.

한편 을사늑약 이후 위기의식은 정치·계몽단체 조직으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단체는 근대교육 보급과 식산흥업을 통한 국권 회복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었다. 대한자강회는 계몽운동 확산을 위하여 지회 설립인가에 착수하였다. 김규홍은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나 뚜렷한 활동상은 보이지 않는다. 당시 임원 중 상당수는 그와 개인적인 친분이 돈돈한 인물이 적지 않았다. 대표적인 인물은 심의성·유근·원영의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독립협회 때부터 같이 활동한 인연에서 시작되었다.³²⁾ 대한자강회 활동과 중국 외유 경험은 근대교육에 대한 관심 고조로 이어졌다. 대한자강회는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하였다. 각의에서 통과된 의무교육안은 통감부의 방해로 실행될 수 없었다. 이는 식민지 노예교육을 위한 교육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었기 때문이다.

31) 조선총독부, 『지나조선인음모사건에 관한 건(기밀 제152호)』, 1916년 9월 22일자; 배경한, 「신해혁명과 한국-김규홍의 광둥에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212, 290쪽; 김호진, 「범죄 김규홍의 생애와 독립군 양성 계획」, 『한국근현대사연구』 74, 164쪽; 조은경, 「1910년대 전후 한인의 광주 진출과 독립운동 기반 구축 시도」, 『월례발표회 발표문』, 2쪽.

32) 편집부(1906.8), 「회원명부」, 『대한자강회월보』, 제2권.

Ⅲ. 옥천지역 근대교육운동과 김규홍

근대교육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 변화, 현실인식 심화, 國亡에 대한 위기의식 등은 근대교육운동을 추동시키는 요인이었다. 사회·계몽 단체는 이러한 변화를 유도하는 중심체로서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관료·자산가·학생 등과 명망가들은 이를 자신들의 ‘사회적인 책무’로서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주민들도 근대교육 시행을 위한 의연금 모집에 경쟁적으로 참여하는 등 분위기를 반전시켰다.³³⁾ ‘근대교육 시행=교육구국운동’으로 성격 규정은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충북지역은 ‘을사늑약’ 이전까지 사립학교에 의한 근대교육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형편이었다. 1901년 청주군 유생 申興雨 등은 향교 내에 학교를 설립하였다. 그는 운영비 조달은 물론 스스로 학생들을 모집·가르쳤다. 학부는 그를 교원으로 임명하는 동시에 인재양성 정진을 하달하였다.³⁴⁾ 이후 사립학교 설립에 의한 근대교육은 별다른 진전을 이룰 수 없었다.

반면 일본어 보급에 중점을 둔 ‘일어학교’는 오히려 성행하였다. 옥천군 정토교회장인 洪承弼도 사립학교를 설립한 후, 관아 건물을 교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요청하고 나섰다. 군수 黃演秀는 이러한 요구에 대한 수용 여부를 상급기관에 의뢰하였다.³⁵⁾ 이 학교는 정토교 포교와 함께 일어를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일어학교’였다. 통감부 설치를 전후로 ‘일본어 만능시대’가 풍미하였다.³⁶⁾ 물론 외래

33) 김형목(2016), 『대한제국기 충청도 근대교육운동』, 도서출판 선인, 17~19쪽.

34) 『황성신문』 1901년 5월 9일 잡보 「敍任及 辭令」, 1908년 5월 13일 잡보 「開明花樹」, 5월 14일 논설 「高靈申氏의 學界影響」.

35) 『황성신문』 1905년 8월 1일 잡보 「沃倅報告」.

사조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외국어를 배척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일본어를 지나치게 중시한 ‘일어학교’는 근대교육사와 관련하여 한계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분위기는 유지신사들을 자극시키는 주요한 계기였다. 식민지화에 대한 위기의식은 1905년 옥천읍내 유지들로 하여금 進明學校 설립으로 이어졌다. 전관찰사·군수 등은 의연금을 기부하는 등 재정적인 기반 확충에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당시 임직원은 교장 閔衡植, 총감 황연수, 감독 宋準憲, 교감 朴芝陽, 교사 全聖旭·李鍾洙 등이었다.³⁷⁾ 국한문·독서·작문·습자·일어·산술·지지·역사·법률·체조 등은 주요 교과목으로 편성되었다. 이 학교는 1908년 여학생 1명을 수료시키는 등 여성교육을 병행하였다. 성리학적 전통이 강하게 잔존한 상황에서 여성교육 시행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현지인 반응은 대단했다.

沃川郡 進明學校에서 月前 第二期 受業證書授與式을 舉行할시 教師는 勸勉演說하고 學徒優等生은 祝賀하는디 其중에 女學徒 一人이 有하여 年이 十四歲라. 出而演說曰余가 處子로써 諸位紳士 前에 말씀하기 唐突하오나 我國은 女子의 學問이 無하여 每常男子에게만 依賴하여 閨중에 幽囚한 模樣이오 自主張으로 事業을 興을 不知한다더니 今日 우리가 이만치 工夫되야 文明上 言論하는거시 都是 先生의 熱心勸勉하신 功効라하니 滿堂諸人이 歎賞하였다더라.³⁸⁾

같은 해 彰明學校는 전참봉 김규홍 등 유지의 의연금으로 설립되었다. 교과과정은 보통과와 전문과로 각각 구분하였다. 전문과는 교육

36) 김형목(2016), 『대한제국기 충청도 근대교육운동』, 도서출판 선인, 42쪽.

37) 『황성신문』 1905년 8월 18~21일 광고.

38) 『大韓每日申報』 1908년 4월 1일 잡보 「處子演說」.

계몽운동 확산에 따른 유능한 교원양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 일환이었다.³⁹⁾ 교장 민형식, 일어교사 쓰스미 코키치(堤廣吉)과 명예교사 柳在雨·李在淵·成周鳳 등은 운영비를 직접 조달하는 데 앞장섰다.⁴⁰⁾ 60여 명에 달하는 출석생은 향학열이 어느 정도인가 보여준다. 재정 부족으로 폐교에 직면하자 교사 홍승로·유재우 등은 유지에게 호소하는 등 의연금 모금에 적극적이었다. 주민들 열성적인 참여는 학생들의 향학열을 자극시키는 기폭제였다.⁴¹⁾

光東學校를 仁明學校로 개칭한 후 교육 내실화를 도모하자 유지들은 여기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였다. 당시 근대교육에 대한 열의는 다음 기사를 통하여 엿볼 수 있다.

忠北 沃川郡 仁明學校는 卽前觀察使 金命洙氏之所勸立而各項用費와 教師 月額을 獨自擔當이고 學徒中 貧寒無依者면 朝夕食料도 亦爲自備호니 金觀察의 熱心教育함은 遠近僉彦之所攢頌이요 開學이 不過三四朔에 學徒가 卅有餘人 이요 學業前進之望이 果有호며 本校任員도 如左호 敎長 前觀察 金命洙 總務長 本郡守 黃演秀 監督 進士 金有性 前五衛將 李寅觀 校監 主事 朴綺陽 前學官 鄭應淳 教師 全聖旭 幹事人 前主事 柳成烈 前參奉 金興奎 前主事 李鍾洙 贊成 前參判 閔衡植 贊成 前承旨 李建膺 前承旨 沈宜昇.⁴²⁾

이러한 분위기는 이곳의 근대교육을 널리 확산시키는 밑거름이었다. 특히 지방관은 이를 자신의 과업이자 사회적인 책무로서 실천하는 데 앞장섰다. 김규흥도 중교의숙 교사로서 소중한 경험에 따라 의연금 대열에 동참했다. 근대교육을 통한 문명사회 건설을 지향하는 그의

39) 김형목(2016), 『대한제국기 충청도 근대교육운동』, 도서출판 선인, 24쪽.

40) 『황성신문』 1906년 7월 12일 잡보 「彰校近況」; 『만세보』 1906년 8월 24일 잡보 「藥左六郡各處學校 第一回視察事項」; 『大韓每日申報』 1906년 7월 13일 잡보 「彰明試驗」.

41) 『大韓每日申報』 1906년 6월 28일 잡보 「彰明校況」.

42) 『大韓每日申報』 1906년 6월 14일 광고; 『황성신문』 1906년 6월 14일 광고.

정세관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편 의병전쟁의 격화와 사회불안에 따른 경제난은 사립학교 설립에 의한 교육운동 진전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물이었다. 일부 의병들은 학교나 교사·학생 등에 대한 공격을 서슴지 않았다. 더욱이 일제의 경제적인 침략에 따른 생존권 위협은 자제교육을 부차적인 문제로서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⁴³⁾ 물론 개신교 선교사업 일환으로 근대교육이 보급되었으나 서북지역을 비롯한 대부분 주요 도시에 집중되었다.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미션계학교’는 당시 교육계 현실을 이해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당시 옥천지역에 설립된 근대교육기관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대한제국기 옥천지역 근대교육기관 현황⁴⁴⁾

설립 년도	학교명	장 소	설립·운영자	학생수	출전
1905	사립학교	옥천	홍승필; 정토교군회장		황1905.8.1,
	진명학교	옥천	민형식; 교장, 송준현; 감독, 전성육· 이종수; 교사		황1905.8.18~21, 1909.2.13: 大1908.4.1;
	광동학교; 인명학교	교동	김명수; 전관찰사, 전성육; 교사	일어과, 30	황1906.3.29, 4.14, 8.3, 10.20: 大1906.6.14, 7.7, 1907.3.24, 1908.4.15, 7.7; 만1906.8.24, 12.5
	창명학교	옥천	김규홍; 전참봉, 민형식; 교장, 유재우·홍승로·이 재연·성주봉·제광 길; 교사	보통· 전문과/ 60	황1906.6.28, 7.12: 大1906.7.13, 1907.2.27, 3.7, 1908.6.28, 7.13; 만1906.8.24, 12.15, 1907.2.24, 3.6, 3.15, 12.15

43) 『만세보』 1906년 9월 16일 논설 『農産』, 10월 14일 논설 『借款風説』, 10월 16일 논설 『教育費』, 10월 21일 논설 『農形』, 10월 27일 논설 『經濟界』, 12월 8일 논설 『民情』, 1907년 4월 27일 논설 『窮極則通』.

44) <표 1>의 大는 『大韓每日申報(국한문혼용판)』, 대는 『대한매일신보(한글판)』, 황은 『황성신문』, 만은 『만세보』, 제는 『제국신문』 등을 각각 의미한다.

설립 년도	학교명	장 소	설립·운영자	학생수	출전
1906	진명여학교	옥천			제1906.3.31
	영명학교	옥천	황연수(군수); 교장, 육조영·김규환·이 면하·유기풍; 교사	20/면립	만1906.8.24
	일명학교	옥천	황연수(군수); 교장, 송헌철; 교사, 궁반직일랑; 찬성원	20/면립	만1906.8.24
1907	사립학교; 노동동명 학교	이남 평산리	박문흠·박정진·조 창렬·박권호	86	大1907.12.7, 1909.4.28: 대1907.12.7
1908	노동학교 관내7개소	옥천 관내	신현구; 군수		황1909.2.13
1909	노동동명 학교지교	이남 적령리	유지제씨	양지교 46명	大1909.4.28
	노동동명 학교지교	이남 소도리	유지제씨	"	大1909.4.28
	신명의숙	옥천 읍내	홍승로; 군주사	직원과 퇴리	황1909.4.8

* 출전: 김형목, 『한말 충청도 야학운동의 주체와 이념』: 『옥천군지』 참조.

<표 1>은 당시 모든 사립학교를 망라하지 않았다. 개량서당을 비롯한 근대교육기관으로 전환된 의숙·사숙 중 상당수 누락되었기 때문이다.⁴⁵⁾ <표 1>에 나타난 학교는 당시 비교적 잘 ‘알려진’ 교육기관이라고 생각된다. 현상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다른 지역처럼 다양한 계층에 의하여 교육운동이 추진되었다. 현직 군수를 비롯한 전직 관료·재산가·종교인·교사·학생 등은 중심적인 주체였다. 군수 신현구는 관내에 7개 노동야학을 설립하는 등 學齡兒童 구제는 물론 노동자 문맹퇴치에 혼신을 다했다. 야학운동도 향학열이 고조되는 상황과 맞물려 급속한 확산과 진전되는 계기를

45) 『大韓每日申報』 1906년 7월 6일 잡보 『鎭川郡紳士의 寄書』.

맞았다.⁴⁶⁾ 특히 일본인의 교육운동과 국채보상운동 동참은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둘째로 일본인에 의한 근대교육 보급이 확산되었다. 이는 일본어 보급을 촉진시키는 요인이었다. 일진회를 비롯한 제국실업회 · 정토교 지회 등 친일단체나 일본인 관리 · 실업가 등은 교육활동을 통하여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궁극적인 의도는 친일세력 육성이었다. ‘일본어 만능시대’는 친일세력 발호 · 식민지화와 더불어 급속하게 확산되는 분위기였다.⁴⁷⁾ 위기의식과 달리 문명화에 대한 기대감은 이러한 분위기를 조장하고 말았다.

셋째로 여성교육이 매우 부진하였다. 보수적인 지역적 특성은 여성교육에서 확연하게 엿볼 수 있다. 여성단체 부진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일부는 여성이 근대교육을 받으면, 문명에 편승하여 사치풍조를 조장하거나 교만해진다고 보았다.⁴⁸⁾ 강고한 남존여비 의식은 여자교육 보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기독교인들에 의하여 점차 해소되었다. 3·1운동 이후 개조론이 풍미하는 가운데 여성야학(일명 여자야학)은 대부분 기독교와 관련된 인물들에 의하여 주도되었다. 여성야학이 새로운 배움터로서 호평을 받는 가운데 근대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결정적인 시기는 1920년대였다.

넷째로 교사 양성을 위하여 옥천 청명학교는 고등과 · 속성과 · 전문과 등을 운영하였다. 이는 바로 사립학교설립운동 활성화를

46) 김형목(2002), 『한말 충청도 야학운동의 주체와 이념』,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18권, 37~44쪽.

47) 김형목(2001), 『1910년 전후 야학운동의 실태와 기능』, 중앙대학교 사학과 박사논문, 141~149쪽.

48) 『大韓每日申報』 1909년 11월 17일 논설 『女子教育에 對한 一論』; 『대한매일신보』 1909년 11월 17일 논설 『녀자교육에 대한 의론』.

초래하는 요인 중 하나였다. 의무교육을 시행한 지방은 ‘의무교육’ 일환으로 교사양성을 주도하는 등 근대교육 보급에 크게 이바지했다.⁴⁹⁾ 각 학회의 사범교육 중시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다섯째로 전통교육기관을 근대교육기관으로 전환시킨 경우가 드물었다. 대부분의 향교·서원·서당 등의 경제적인 기반을 활용하지 않았고, 이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많은 갈등을 일으켰다. 특히 개량 서당에 관한 사료는 일부 ‘문중학교’를 제외하고 너무나 소략하다. 향교답이나 서원답을 기반으로 설립된 명륜학교는 전통교육과 근대교육을 병행하고 있었다.⁵⁰⁾ 다만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신·구 학문을 절충하여 가르치는 경우가 많았다. 근대학문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진을 확보할 수 없는 현지 여건은 이러한 상황을 초래하는 요인이었다.

교과목은 공립보통학교와 유사하게 편성되었다. 다만 지역적인 사정에 따라 교과목은 약간 축소되었다. 이는 교사진 구성, 교육기간 단축, 비싼 교재 구입의 어려움 등 여러 요인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능력에 걸맞는 교사 영입은 커다란 문제였다. 대한협회·기호흥학회 등 각 학회의 교사소개소 운영은 당시 상황을 반증한다.⁵¹⁾

한편 옥천공립보통학교는 1910년 8월 6일 학부고시로 설립되었다. 부족한 교육시설 보완은 사립학교를 관비 지원에 의해 공립학교로 전환시켰다. 당시 공립학교로 전환된 사립학교는 옥천 신명학교를

49) 김형목(1997), 「자강운동기 한성부민회의 의무교육 시행과 성격」, 『중앙사론』, 제9권, 88~89쪽.

50) 김형목(2016), 『대한제국기 충청도 근대교육운동』, 도서출판 선인, 37쪽.

51) 『황성신문』 1908년 8월 4일~9월 2일 광고; 『大韓每日申報』 1908년 8월 4일~9월 2일 광고, 8월 19일 잡보 「教師紹介所 別設」; 『대한매일신보』 1908년 8월 19일 잡보 「교사소개소」.

비롯하여 파주 광흥학교 · 영동 영동학교 · 직산 경위학교 · 감포 청출 학교 등이었다.⁵²⁾ 명분과 달리 궁극적인 목적은 일본인 교사 파견을 통한 식민지교육을 강화하기 위함에서 비롯되었다. 현재 남아 있는 초등교육기관에 대한 연혁은 일제 식민교육정책을 옹호하는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리는 식민잔재 청산이라는 관점에서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이다.

IV. 교육 계몽운동사에서 역할과 위상

창명학교는 설립하여 교육운동에 진력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은 삼시간에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미담 사례 등은 신문을 통하여 신속하게 알려지는 동시에 상인 등을 통하여 각지로 전파되는 분위기였다. 장날은 이러한 소식이 전파되는 통로이자 최대의 공론장이자 다름없었다.⁵³⁾ 신분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각계각층이 경쟁적으로 동참하는 등 ‘나랏빚’ 청산에 전력을 경주하였다.

호서지방 54개 군에 거주하는 유지신사는 「국채보상의조권고문」을 발표하는 등 새로운 계기를 제공했다. 충청도 전체를 망라한 권고문은 주민들 관심을 집중시킬 만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무릇 인민이 있는 후에 국가가 있고, 국가가 있는 연후에 인민이 안락함은 고금 천하에 변하지 않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오늘날 인민이 안락함과 보호를 받지 못하면 국가는 쇠약해지고, 국가가 부강하지 못하면 인민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로 인민에게 환란이 있으면 국가는 반드시 구휼하는 반면 국가가

52) 이성욱 역(2009), 『구한말 근대학교의 형성』, 경인문화사, 114쪽.

53) 김형목(2013), 「한말 충북지역의 국권회복운동」, 『역사와 담론』 제68권, 25쪽.

위급하면 인민은 반드시 이를 막아 지켜야 합니다. 다행히 대구에 단연회가 창설되고 서울에 기성회가 조직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동포의 ‘첫째 의무’요, 성과가 이루어지는 날은 우리 동포에게 제일 좋은 행복한 소식입니다. 우리 湖中도 다른 지방에 결코 뒤질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이를 당당하게 널리 알립니다.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금주단연하여 힘껏 의연하여 기필코 국채를 갚아 다시 국권을 회복하면 아름다운 우리 마을에 화창한 봄날이 자손만대의 복록으로 이어질 것임에 틀림없습니다…(하략)…⁵⁴⁾

금액 다소에 구애됨이 없이 남녀노소는 모두 의연에 동참하자고 주창했다. 이는 국민의 의무로서 국채보상에 동참을 강조하는 분위기로 이어졌다. ‘有國’이나 ‘有民’ 등의 강조는 국가의식이나 민족의식을 일깨우는 유효한 방안 중 하나였다.⁵⁵⁾ 충의관이나 충군의식이 공존하는 상황에 걸맞는 적절한 내용을 취지서에 담았다. 나아가 한민족은 운명공동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등 주민들 참여를 독려하기에 이르렀다.

권고문 발표를 전후로 도내 유지들은 국채보상회 조직과 의연금 모집에 적극 나섰다. 이들은 국채보상을 인민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임을 다시 강조하였다.⁵⁶⁾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인민은 ‘국가를 보위할 의무’로서 국채를 인식하고 있었다. 신문은 이를 신속하게 보도함으로써 분위기를 확산·고조시켰다. 경쟁적인 참여는 이러한 인식과 정세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다.⁵⁷⁾

도내 최초로 국채보상회를 조직한 곳은 옥천군이었다. 발기인은

54) 『대한매일신보』 1907년 3월 7일 잡보 「國債報償義助勸告文 湖中紳士等」; 대구광역시, 『국채보상운동100-대한매일신보 편』 3, 2007, 82쪽.

55) 김형목(2011), 「충북지역 국채보상운동의 지역운동사상 의의」,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69호, 157쪽.

56) 김형목(2016), 『충청도 국채보상운동』, 도서출판 선인, 70~71쪽.

57) 일진회장 이용구, 「갑오경장 이후 각종 정부 시책에 대한 일진회장 이용구의 비판 8조목」, 『각사등록』, 1907년 5월 4일조.

鄭憲溶 · 金春根 · 李永甲 · 洪承昌 등 무려 21명에 달했다.⁵⁸⁾ 이들은 3월 3일 「충청북도옥천군국채보상단연의무회취지서」인 「옥천군단연의무회취지서」를 발표하였다.

지금 우리나라는 1,300만 원에 달하는 많은 외채를 떠안고 있으니 올해 갚지 못하고 내년에도 갚지 못해 해마다 이와 같이 반복되면 필연적으로 이자는 원금보다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를 갚지 못하면 국가는 보존하기 어렵고 국가를 보존하지 못하면 아, 우리 동포는 장차 어디에 생명을 부지하리요 우리 역시 뜨거운 마음이 차솟아 오르는 바, 의로운 마음을 늦출 수 없어 충청북도 옥천군에 국채보상단연의무회를 감히 설치하옵고 이에 널리 알립니다. 우리 동포는 이때를 놓치지 말고 힘껏 의연하여 외채를 갚는다면 국가의 다행이요 신민의 다행이겠습니다.⁵⁹⁾

이들은 생존경쟁시대에 부응하는 한편 국권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국채보상을 강조하였다. 발기인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동시에 주민들 참여를 독려하는데 노력했다. 주요 내용은 첫째로 본회 목적은 국채보상에 있다. 둘째로 보상 방법은 의연금을 모금한다. 셋째로 의연 금액은 능력에 따라 금액 다소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다. 넷째로 본회에 의연금을 출연한 성명과 금액은 신문에 공포한다. 마지막으로 임시 사무소는 읍내 海昌號商店으로 정한다는 등이었다.⁶⁰⁾ 이는 주민들의

58) 석람김광제선생유고집발간위원회(2007), 『독립지사 김광제선생 유고집 민족해방을 꿈꾸던 선각자 (증보판)』, 별첨-16쪽. 발기인은 이들 외에 金存性 · 洪承老 · 金翺性 · 鄭翺溶 · 金在九 · 李圭淵 · 金圭선 · 姜敬熙 · 鄭泰佑 · 鄭源周 · 金容根 · 金興奎 · 鄭鎭溶 · 李鍾哲 · 鄭泰國 · 柳丙憲 · 梁斗煥 등이었다.

59) 『대한매일신보』 1907년 3월 8~9일 잡보 「충청북도옥천군국채보상단연의무회취지서」, 4월 4일 잡보 「국채보상단연의무회취지서」; 『황성신문』 1907년 3월 9일 잡보 「충청북도 옥천군국채보상단연의무회취지서」: 대구광역시, 『국채보상운동100년-대한매일신보 편』 3, 85쪽.

60) 『만세보』 1907년 3월 6일 잡보 「國債報償斷烟忠淸北道沃川郡義務會趣旨書」, 4월 19일 잡보 「沃郡義金」; 이종준, 「잡록, 국채보상단연충청북도 옥천군」, 『대한자강회월보』 9, 1907, 67쪽; 대구상공회의소, 『국채보상운동사』, 1997, 136~137쪽; 김형묵, 『충청도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하기 위함이자 애국심을 촉발시키려는 의도였다. 항구적이 아니라 국채보상을 청산하는 그날까지만 모금기간을 설정한 사실은 이를 방증한다. 4월에 취지서를 다시 공포한 사실은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⁶¹⁾ 이는 활화산처럼 전개 되는 각지 상황을 소개하면서 경쟁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애국적인 열정은 초기 의병전쟁 이래 더욱 심화되는 분위기였다. 그런 만큼 자립경제를 통한 국권회복운동에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이곳은 충북 도내 단양·영동·보은·진천 등지에 비하여 가장 빠른 3월 3일부터 시작되었다.⁶²⁾ 일찍이 독립협회 지회가 설립되는 등 외부 세계와 소통은 이러한 상황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시세 변화에 부응하려는 현지 선각자의 현실인식 심화와 무관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채보상회 발기인 東嶺 柳丙憲은 장날을 이용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앞장섰다.

…(상략)… 우리 제국 오늘의 국세는 우리 국민이 충애정신을 발휘하여 각 개인이 국민된 직분을 다하지 못한 소치요, 이 못난 사람도 우리 제국에 대하여 일개 분자의 죄인이라 하노니, 외국인에 대하여 대한제국 국민이라 하며 중대한 대한인(大韓人) 석자의 공칭을 두르기가 낮이 뜨겁소…(중략)…

충북 옥천군에서도 전 참서관 李圭淵씨가 오로지 충애로 우국하기를 많은 사람들보다 더하더니 영남의 희소식을 듣고는 따르지 못할세라 두려운 듯 국채보상단연의무회를 창설하여, 이 사람 역시 본회의 발기인이 되어 동정을 표하오니 가위 개미가 한 알의 곡식을 짙어진 이유도 역시 그 힘을 다 하는 것이오니 우리 동포는 잘 생각하고 깊이 요량하십시오. 단연 뿐만 아니라 말을 타시는 이는 걷고, 비단옷 입으시는 사람은 배운을 입어서 車馬費와 비단옷 의 모든 일에 힘써 경제를 생각하여 속속히 국채를 보상하와 국권을 만회하며

국채보상운동』, 72쪽.

61) 김형목(2013), 「한말 충북지역의 국권회복운동」, 『역사와 담론』, 제68권, 23쪽.

62) 『만세보』 1907년 3월 6일 잡보 「國債報償斷烟忠清北道沃川郡義務會趣旨書」.

충에 두 글자를 뇌수에 인각하고 마음에 새겨 앞으로 나아간다면 한걸음 한걸음이 결국 일만 걸음에 이르러 부강한 나라와 문명한 나라에 머지않아 기필코 도달하리니 바라건데 우리 동포는 충애정신과 단결력을 크게 발하여 뒷날 요나라와 같은 세월, 순나라 같은 땅에 태평무량한 행복을 이루기를 하늘에 빌고 땅에 축원하오이다.⁶³⁾

오늘날 생존경쟁 시대에 즈음하여 열강은 부강하면서 문명사회를 달성하여 豐裕를 누리고 있으며, 문명국가에서 도태하여 경제적인 곤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유병헌은 발기인이자 모금 총대인 이규연의 열성적인 활동을 칭송하는 한편 관념적인 내용보다 현실적인 상황에서 가능한 ‘실천강령’을 제시하였다.⁶⁴⁾ 대부분 국채보상취지서는 전통적인 충군·애국심에 호소하는 내용이였다. 이에 비하여 이곳 국채보상운동 주역들은 실생활에서 근검·절약으로 국채를 갚아야 한다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충북 옥천군 창명학교에 재직 중인 쓰스미 고키치는 5원을 수금소로 보냈다. 단연을 결심한 후 학생들에게 국채보상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나는 본래 일본인이거나 지금은 한국 강토에서 생활하니 당연히 萬國通義에 의하여 한국을 위할 것이라. 금일로 시작하여 나도 단연동맹하노니 학생 여러분의 본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었지 나에게 못 미치리오 하고 의견을 권고한다더라.⁶⁵⁾

비록 그는 일본인이거나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63) 『대한매일신보』 1907년 5월 30일~6월 1일 잡보 『沃川郡國債報償斷煙義務會目的을以驪호야 市上에 演說호』; 대구상공회의소, 『국채보상운동사』, 137~139쪽.

64) 『만세보』 1907년 4월 19일 잡보 『沃郡義金』: 김형목, 『국채보상운동』, 『옥천군지』 2, 115쪽.

65) 『만세보』 1907년 4월 3일 잡보 『일교사 단연』; 『大韓每日申報』 1907년 4월 5일 잡보 『筆下層瀾』.

사회운동에 참여하여야 했다. 한국을 위한 활동은 萬國通義에 전혀 저촉되지 않는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 이는 학생들에게 경쟁시대에 처한 현실에서 경제적인 자립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이를 계기로 창명학교는 주민들의 열성적인 지원을 받았다. 더욱이 학생들 민족의식이나 국가의식은 현실에 나타난 모순을 직시하는 가운데 보다 심화될 수 있었다. 개항장에 거주하는 양심적인 일본인이나 중국인은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섰다.⁶⁶⁾ 신문은 이와 같은 사례를 미담으로 신속하게 보도하는 등 선전활동을 강화하였다.

이는 주민들에게 국권회복운동 일환으로 전개하는 국채보상운동의 참된 의미를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⁶⁷⁾ 심금을 울리는 간절한 권고문은 경쟁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기폭제나 다름없었다. 모금 동참을 주도한 인물은 역시 국채보상단연의무회를 발기한 인물이었다. 즉 이기연·정익용·유기연·양두환·유병헌 등은 23원을 모금하였다. 참여한 지역도 읍내면·군북면·군남면·군서면 등 전 지역민이었다. 특히 군북면과 군남면 주민들 동참이 적극적이었다. 『황성신문』에 보도된 제1차 모금액은 105원 55전 제2차 모금액은 19원 80전이였다.⁶⁸⁾ 열성과 달리 모금된 금액은 그리 많지는 않다. 그러나 금액에 관계없이 옥천인의 자립경제를 지향하려는 열성이 응집된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나아가 의연금 모금은 시세 변화와 현실 상황을 직접 체험하는 생활현장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국채보상=국민적인 의무’라는 인식은 스스로 사회적인 존재로서 거듭나는 밑거름이었다. 더불어 운명공동체라는 사실도 강조하는 등 사회적인

66) 김형목(2016), 『충청도 국채보상운동』, 도서출판 선인, 82~83쪽.

67) 김형목(2012), 『김광제, 나랏빛 청산이 독립국가 건설이다』, 도서출판 선인, 120~121쪽.

68) 『황성신문』 1906년 5월 4일 광고, 10월 6일 광고.

책무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자발적·경쟁적인 참여는 이와 같은 역사적인 배경에서 비롯되었다.

이처럼 국채보상운동 확산은 근대교육 시행에 따른 민지 계발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⁶⁹⁾ 창명학교 일본인 교사 참여는 국적을 초월한 사회적인 책무를 일깨우는 계기 중 하나였다. 김규흥에 의한 근대교육 보급은 이와 같은 인식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음 기사는 그의 교육활동에 대한 열의가 어느 정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忠北 沃川郡 彰明學校는 本郡居 金參奉奎興氏가 新進年少의 學問이 鹵莽함을 慨歎하야 出義發起한 바여니와 生徒之修業이 頗有進就의 氣像이러니 財政이 窟拙하야 維持沒策함으로 教師는 他校延聘한 비되고 七十餘人學徒가 一朝解散한 境遇의 至하니 憤鬱不勝하야 至於擊案流淚者 多한 지라. 洪承老 柳在雨諸氏가 一般學生의 憤激한 情狀을 見하고 蹶然而起하야 一場演說로 更히 維持할 方針을 研究하야 柳在雨氏는 財政鳩聚하야 教師延聘하기 前教師代辦을 名譽로 擔任하고 洪承老氏는 往來京鄕의 極力斡旋하야 校長 閔衡植氏가 學校의 廢止을 嗟惜하디 諸氏의 熱心을 歎服하야 每朔 新貨二十元式 欣然捐付하니 生徒及閭閻人士가 校長의 殊異한 厚意를 攢頌不已하며 本郡守 黃演秀氏와 송準憲 李圭淵 金奎璫 李寅觀 成周鳳諸氏가 熱心贊成하고 極力研究하느니 教師은 姑未延聘함으로 方在憂歎中이라더라.⁷⁰⁾

1906년 6월에는 보통과 진급시험과 전문과 졸업시험을 실시하였다. 보통과 2년 1기생 李光雨·韓淇錫·金鎭英·姜周振, 보통과 1년 3기생 洪承壽·洪承昌·金秉숙·李用雨·尹稹求·洪承箕·金奎成·洪承耆·李寅鶴·李淳學, 보통과 1년 2기생 洪承老·李奉植·李淳和·

69) 편집부(1908.9), 「학계휘문」, 『기호학회월보』, 제2권.

70) 『大韓每日申報』 1906년 6월 28일 잡보 「彰明校況」.

柳福景·琴吉萬·柳昌洙, 보통과 1년 1기생 李興鎬·張麟洙·鄭達海 등이 각각 진급시험에 합격했다. 전문과졸업생으로 洪承昌·洪承耆·尹禎求·洪承老·金秉숙·成周鳳·李淳和·李光雨·張麟洙·李用雨·李興鎬·任澤秀·韓淇錫·宋旻憲 등이었다.⁷¹⁾ 고조된 향학열은 교육 내실화를 위한 고명한 외국교사 초빙을 계획하는 등 중장기적인 발전 방안이 모색되는 계기를 맞았다.

사립학교 설립에 의한 민지 계발은 옥천지역의 근대교육을 발전시키는 밑거름이었다. 근로청소년을 위한 야학도 ‘새로운 배움터’로서 주목을 받았다. 배움에 대한 갈망은 이러한 변화를 초래하는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국문야학의 성행은 민족의식 고취시키는 가운데 자신감을 일깨웠다. 옥천은 사립학교와 더불어 국문야학이 성행한 대표적인 지역 중 하나이다. 이는 김규홍 등의 교육 계몽활동과 무관하지 않다. 곧 야학은 단순한 문맹퇴치 차원을 벗어나 새로운 변화에 부응한 사회질서를 수립하려는 의도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⁷²⁾

교육 계몽운동을 주도한 중심적인 인물은 김규홍을 비롯한 전·현직 관료였다. 이들은 직접 근대적인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한편 운영비 지원을 사회적인 책무로서 인식·실천하는데 앞장섰다. 더욱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국채보상운동 전개는 이러한 변화를 초래하는 든든한 밑거름이었다. 나아가 외부 세계와 교류에 의한 소통은 주민들 인식변화와 더불어 강한 유대감으로 진전되는 계기였다. 김규홍의 근대교육운동 경험은 이후 둔전제에 입각한 독립군 양성계획으로 발전되었다. 선구적인 국외 독립운동 기지건설은 이러한 역사적인

71) 『大韓每日申報』 1906년 7월 13일 잡보 「彰明試驗」; 『대한매일신보』 1909년 11월 17일 논설 「너즈교육에 대한 의론」.

72) 김형목(2016), 『대한제국기 충청도 근대교육운동』, 도서출판 선인, 74~75쪽.

상황과 맞물려 진전될 수 있었다.⁷³⁾ 김규홍의 국내 교육 계몽활동에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찾아진다.

V. 맺음말

충북 옥천은 내륙지역 오지임에도 일찍이 독립협회 지회가 조직되는 등 외부 세계와 소통이 이루어졌다. 이를 주도한 인물은 바로 김규홍으로 생각된다. 1760년을 전후로 선조들은 이곳에 정착한 재직사족이었다. 그는 이곳에서 태어나 전통적인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다. 영민한 두뇌는 가문은 물론 주위 사람들로부터 부러움과 칭송의 대상이었다.

20대 중반에 관계로 진출하면서 그의 서울 생활은 시작되었다. 폭넓은 교류는 시세변화를 절감하는 동시에 다양한 사조를 수용하는 유연한 사고를 견지할 수 있는 든든한 밑거름이었다. 독립협회 참여나 종교의숙 교사로서 활동은 근대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하는 현장이었다. 국민국가 수립에 절대적인 요인은 바로 근대교육에 의한 민지계발임을 인식했다. 특히 독립협회 활동 당시 맺은 소중한 인연은 그의 항일운동을 견인하는 정신적인 자산이자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물론 뚜렷한 활동상은 보이지 않았으나 이후 행적 등을 통하여 당시 상황을 유추하여 볼 수 있다.

러일전쟁 발발과 을사늑약 전후로 위기의식과 亡國에 대한 우려는 모든 관직을 사임하는 결정적인 계기였다. 서울에서 고향을 오가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1905~1906년 중국으로 외유는 항일역정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출발점이었다. 당시 중국인과 맺은

73) 손염홍(2015), 「김복의 둔전병제 독립운동과 흥화실업은행」, 『한국근현대사연구』, 제72권, 참조.

인연은 항일투쟁에서 뚜렷한 발자취를 남기는 주요한 밑거름이나 마찬가지였다. 대한자강회 가입과 활동 등은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서 민지 계발에 주목하였다. 창명학교 설립과 운영은 근대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창명학교는 옥천지역 근대교육을 대표하는 교육기관으로 발전을 거듭하였다. 교사와 학생 등은 국채보상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사회적인 존재성을 자각했다. 일제 경제적인 침략에 맞선 이러한 활동은 현실인식을 심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 중 하나였다. 특히 전문과 졸업생 등은 관내 계몽운동을 주도하는 중심인물로 성장했다. 창명학교 교육 실상을 널리 홍보한 홍승로 등은 대표적인 인물이다.

국채보상운동을 진전시킨 주인공 등도 이들이었다. 일본인 교사의 적극적인 참여는 근대교육에 대한 주민들 인식을 변화시키는 결정체였다. 운영난에 직면한 사립학교에 대한 주민들 참여는 근대교육 중요성과 더불어 향학열을 고조시켰다. 근로청소년을 위한 국문야학은 ‘새로운 배움터’로서 주목을 받았다. 근대교육 기관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인 책무로서 인식될 만큼 대단한 분위기였다.

김규홍의 교육 계몽활동은 단순한 지적인 능력 향상에만 있지 않았다. 사회적인 책무를 인식하는 동시에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직시함으로써 나아갈 방향을 견인하는데 있었다. 헤이그특사사건 이후 일제의 침략이 더욱 강화되자 한중 연대에 의한 공동투쟁을 위하여 망명길을 떠났다. 중국에서 항일투쟁 역정은 국내에서 교육 계몽활동이 소중한 자산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의 교육 계몽운동에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찾아진다.

참고문헌

- 『독립신문』, 『황성신문』, 『大韓每日申報(국한문혼용판)』, 『대한매일신보(한글판)』, 『만세보』, 『국민보』, 『대한자강회월보』, 『기호흥학회월보』.
- 국사편찬위원회(1972), 『대한제국관원이력서』.
- 吳相奎(1910), 『槐庭雜錄』.
- 吳相奎(1924), 『槐庭集』.
- 청풍김씨대종회(2003), 『청풍김씨세헌록』.
- 청풍김씨세보편찬위원회(2002), 『청풍김씨세보』.
- 김진영(1964), 『범재공행장』, 『청풍김씨가승』.
- 김현구(1987), 『The Writings of Henry Cu Kim』, University of Hawaii Press.
- 필자미상, 『독립협회연력략』; 편집부(1970), 『독립협회연력략』, 『창작과비평』, 봄호, 창작과비평사, 1927.
- 朝鮮總督府警務局(1934), 『國外ニ於ケル容疑朝鮮人名簿』.
- 강영심(2010), 『시대를 앞서간 민족혁명의 선각자 신규식』, 역사공간.
- 김도훈(2010), 『미대륙의 항일 무장투쟁론자 박용만』, 역사공간.
- 김상철 · 김상구(2010), 『범재 김규홍과 3·1혁명』, 이담북스.
- 김한영(2002), 『범재와 독립운동』, 서울정판사.
- 김형목(2016), 『대한제국기 충청지역 근대교육운동』, 도서출판 선인.
- _____ (2016), 『충청도 국채보상운동』, 도서출판 선인.
- 배경한(2007), 『쑨원과 한국』, 한올아카데미.
- 손염홍(2011), 『근대 북경의 한인사회와 민족운동』, 역사공간.
- 국가보훈처(2000), 『김규홍』, 『독립유공자공훈록』 14.
- 김형목(2002), 『한국 충청도 야학운동의 주체와 이념』, 한국독립운동

- 사연구소,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8.
- _____(2002), 「한말 충북지방의 사립학교설립운동」, 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근현대사연구』, 23.
- _____(2011), 「충북지역 국채보상운동의 지역운동사상 의의」,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9.
- _____(2013), 「한말 충북지역의 국권회복운동」, 호서사학회, 『역사와담론』, 68.
- _____(2015), 「근대 옥천」, 옥천군지편찬위원회, 『옥천군지』 II(역사와전통).
- 김호진(2015), 「범재 김규홍의 생애와 독립군 양성 계획」, 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근현대사연구』, 74.
- 박걸순(2016), 「옥천지역 근대의 기억과 독립운동가」,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중원문화논총』, 24.
- _____(2020), 「옥천인의 해외독립운동과 선양사업의 과제」,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중원문화논총』, 28.
- 배경한(1999), 「상해·남경지역의 초기(1911~1913) 한인망명자들과 신해혁명」, 동양사학회, 『동양사학연구』, 67.
- _____(2011), 「신해혁명과 한국-김규홍의 광둥에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역사학회, 『역사학보』, 212.
- _____(2015), 「한국독립운동과 신해혁명」, 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근현대사연구』, 75.
- _____(2019), 「독립운동과 친일의 경계: 在中 독립운동가 金奎興의 宇都宮太郎 조선군사령관에의 접근문제」, 역사학회, 『역사학보』, 244.
- 손염홍(2004), 「1910~1920년대 중반 북경 한인사회와 민족운동의

특징』, 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근현대사연구』, 30.

_____(2015), 『김복의 둔전병제 독립운동과 흥아실업은행』, 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근현대사연구』, 72.

Beomjae Kim Kyu-heung's Educational Enlightenment Activities and Character: The Direction of People's Enlightenment and People's Power

Joo Yong Kim *

Abstract

Kim Kyu-heung studied Chinese classics early and moved to Seoul in his mid-twenties. His wide-ranging exchanges allowed him to maintain a flexible mindset that accommodates various trends while reducing market changes. His participation in independent associations and his activities as a middle school uisuk teacher were the sites where he realized the importance of modern education.

After the Eulsa Treaty, the sense of crisis and concern about the country was an opportunity to resign all government posts. When he traveled back and forth from Seoul to his hometown, he came to seek a new direction. Traveling abroad to China in 1905~1906 was the starting point for the anti-Japanese movement in earnest. At that time, the relationship with the Chinese was the main foundation for leaving a clear footprint in the anti-Japanese struggle. Membership and activities of the Korea Self-Generation Association paid attention to the development of private land as the top priority for the construction of an independent nation.

Changmyeong School has repeatedly developed into an educational institution representing modern education in the Okcheon area. Teachers and students became aware of their social existence by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National Debt Redemption Movement. These activities against the Japanese economic aggression deepened their

* Assistant Professor, Korean Chinese Relations Institute, Wonkwang University
(E-mail: kimsu8590@wku.ac.kr)

awareness of reality.

Kim Kyu-Hong's educational enlightenment activities were not limited to simple ability improvement. His purpose was to suggest a direction to move forward by recognizing social responsibility and facing the reality they faced. As Japanese aggression intensified after the Hague special envoy incident, he left for exile for a joint struggle by the Korean-Chinese solidarity. It goes without saying that the history of the anti-Japanese struggle in China is a valuable asset for educational enlightenment activities in Korea.

Keyword: Independent Association, Middle School Uisuk, Moon Hyang-heon, Jinmyeong School, Changmyeong School, Education Enlightenment Movement, National Debt Redemption Movement, National Rights Restoration Movement, Kim Hyun-gu (Henry Cu Kim)